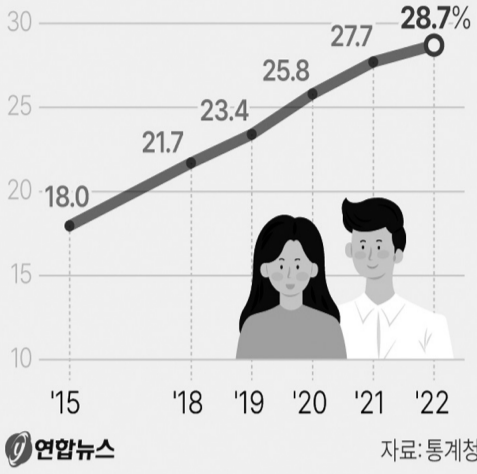


# 신혼부부 10쌍 중 3쌍 '딩크족'... '맞벌이·무자녀' 23만쌍

## 딩크족 신혼부부 비중 추이

혼인신고를 한지 5년이 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 중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 비중



### 딩크족 비중 2015년 18%→2022년 28.7%...역대 최대치 경제적 어려움에 맞벌이 늘어...무자녀 긍정적 인식 높아져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부부 10쌍 중 3쌍은 '딩크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딩크족은 'Double Income No Kid'의 앞 글자를 따 만들어진 단어로, 자녀는 없는 맞벌이 부부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다.

18일 통계청 '2022년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년차 이하 초혼 신혼부부 81만 5357쌍 중 맞벌이지만 자녀는 없는 부부는 23만 4066쌍(28.7%)으로 전체 부부 유형에서 가장 많았다.

이러 맞벌이·유자녀 부부는 23만 2459쌍(28.5%), 외벌이·유자녀 부부(18만 5155쌍·

22.7%), 외벌이·무자녀 부부(12만 6531쌍·15.5%) 순으로 많았다.

딩크족이 전체 초혼 신혼부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딩크족은 21만 2733쌍으로 전체 초혼 신혼부부의 18%로 외벌이·유(有)자녀 부부(40만 9014쌍·34.7%), 맞벌이·유자녀 부부(29만 2826쌍·24.8%)에 견줘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딩크족 비중이 21.7%, 2020년에는 25.8%까지 치솟았고, 지난해 28.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 2015년 가장 흔한 부부 유형이었던 외

벌이·유자녀 부부의 비중은 2018년 30.0%에서 2020년 26.2%, 지난해에는 22.7%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남성 혼자 경제생활을 하는 외벌이 가구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나, 자녀를 낳아 기르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거나 낳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개인이 중요해진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딩크족의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장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보고서에 따르면 '무(無)자녀'에 대해 20~30대가 가지는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무자녀에 대해 20~30대의 긍정적인 평가는 27.7%에 불과했지만, 지난 2020년에는 44.1%로 16.4%포인트

트나 많아졌다.

아울러 유자녀 신혼부부들의 출산 시기는 점점 늦어지고, 신혼기간(결혼생활 5년 차 미만)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부부도 많아지고 있다.

부부 중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5년이 지난 뒤 첫째 자녀를 출산한 비중은 지난 2012년 5.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5%로 2배 이상 늘었다.

또 경제적 여유가 있을 수록 자녀를 낳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구간별 평균 자녀 수를 살펴보면 초혼 신혼부부의 연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일 때 자녀 수가 0.77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7000만~1억원 미만 0.55명, 1억원 이상 0.57명으로 적었고, 1000만~3000만원 0.71명, 3000만~5000만원 미만 0.72명, 5000만원~7000만원 미만은 0.66명이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KJ카드로 여행박사 상품 결제시 7% 즉시 할인”

### 광주은행 내년 3월 15일까지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024년 3월 15일까지 '여행박사'와 연계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특별 할인 이벤트 기간 내에 광주은행 KJ카드 로 국내 여행사인 여행박사 100만원 이상 결제 시 7%를 즉시 할인하며, 해외여행 패키지 및 자유여행 상품 구입 시 선착순 285명을 대상으로 최대 7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 와벵크' 접속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여행박사 여행서비스 오픈 기념 이벤트'를 통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대상은 광주은행 KJ카드 개인회원(신용·체크카드)으로 기입카드·기프트카드·지역화폐는 이벤트에서 제외되며, 1인 1회에 한해 최대 7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용 고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광주은행 KJ카드 개인신용카드 회원들을 대상으로는 5만원 이상 결제 시 2~7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벤트 응모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 와벵크



(APP),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동구 광주은행 카드사업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여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고객분들께 작은 보

탔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와 트렌드를 파악해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60세 이상 취업자 '경제허리' 40대 넘어서나

### 월 평균 624만명...전체 22% 차지

### 40대 취업자보다 1만5000명 적어

올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40대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1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월 평균 624만7000명으로, 40대 취업자 수(626만2000명)와 견줘 불과 1만5000명

적었다.

지난 11월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의 22%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평균 기대수명 증가 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60세 이상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40대 취업률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이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께는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40대보다 5000여명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 5월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월 평균 641만 4000명으로 40대(631만 4000명)를 한 차례 앞섰기도 했다.

광주는 11월 40대 취업자가 17만9000명, 60세 이상은 13만 3000명을 기록했다.

전남은 인구 고령화와 젊은 층의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60세 이상이 전체 취업자 수의 절반(36만2000명)을 차지했고 40대는 19만 2000명이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전남 11월 무역수지 12억 달러 흑자

### 전년보다 157.9% 증가

11월 광주·전남 무역수지가 12억8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8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3년 1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 11월 무역수지는 4억9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전년 11월 보다 157.9% 증가한 12억87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은 14% 감소하고 수입은 18.8% 감소했지만, 무역수지는 91억2700만 달러 흑자(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76억6200만 달러 흑자)보다 19.7% 보다 늘어난 규모다.

11월 광주지역 수출액은 13억9500만 달러, 수입액은 4억8500만 달러였으며, 전남은 수출액 40억

7900만 달러, 수입액 37억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광주는 수출부문에서 전년 11월 대비 수출장비(15.2%), 타이어(3.2%)는 증가했지만, 반도체(37.6%), 가전제품(16.2%), 기계류(7.2%)는 줄었다.

수입은 가전제품(5.5%↑)을 제외한 고무(55.3%), 반도체(19.3%), 화공품(12.7%), 기계류(19.8%) 등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했다.

전남은 수출부문에서 수송장비(326.6%), 철강제품(56.3%), 화공품(38%)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14.7%), 기계류(1.99%)는 줄었다.

수입은 철광(30.9%), 석유제품(22%), 원유(1.2%)는 증가했고 석탄(37.6%), 화공품(33.7%)은 감소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상의, 2023 지역 일자리 전문가 포럼

### 고용정책 발굴 등 성과 공유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18일 3층 회의실에서 '2023 지역 일자리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고용노동부와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추진해 온 지역 고용정책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경제진흥생일자리재단,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지역 일자리분야 전문가들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고용인프라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인적자원 관점에서 광주시 관계인구 조사를 통해 지역으로 돌아온 고경력 퇴직인력들의 지식·경력·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 일자리 모델 발굴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또 광주지역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에 따른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일자리 사업 효과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살폈다.

발표자로 나선 최지호 전남대 교수는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사업 간 연계 기반 성과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제언을 제시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코스피	2566.86 (+3.30)
↑ 코스닥	850.96 (+12.65)
↓ 금리(국고채 3년)	3.270 (-0.011)
↑ 환율(USD)	1297.20 (+0.70)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